

수비왕 히스 반짝반짝 빛났다 삼성 '시즌 첫 2연승' 신바람



삼성 히스

‘수비왕’ 아이제야 히스(26점·10리 바운드·3블록슛)를 앞세운 서울 삼성이 고양 오리온을 꺾고 시즌 첫 2연승을 기록했다.

삼성은 1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홈경기에서 오리온을 78-73으로 눌렀다. 2경기 연속 실점을 70점대로 묶은 삼성은 시즌 첫 2연승과 함께 1라운드를 3승6패로 마무리했다.

삼성은 올 시즌 초반 수비가 무너져 고전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92.1실점을 기록했는데, 10개 팀 중 최다실점이었다. 미국프로농구(NBA) 하부리그인 G리그와 유럽 최상위 리그인 러시아에서 최고의 포스트 수비력을 자랑한 히스를 보유하고도 최악의 수비 팀이 됐다는 점은 곱씹어 볼 대목이었다.

다행히 삼성의 수비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전날(10월 31일) 전주 KCC전에서 82-78로 이긴 데 이어 오리온전에서도 수비가 빛났다. 이전까지는 최고의 수비수인 히스가 막는 매치업 상대에게도 무분별하게 도움수비를 펼치는 등 비효율적 전략을 썼지만, 이제는 다르다.

김현수(8점), 이관희(8점), 이호현(6점) 등 가드들이 앞선에서 상대에게 과감한 압박수비를 펼쳤다. 오리온 선수들이 이를 뚫고 들어와도 격정이 없었다. ‘수비왕’ 히스가 뒤를 지켜줬기 때문이다. 히스는 블록슛 3개를 기록하는 등 페인트존으로 들어온 오리온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이날 오리온의 2점슛 성공률은 40%밖에 되지 않았다.

삼성은 4쿼터 막판 오리온의 반격에 66-64까지 쫓겼다. 종료 3분40초 전에는 오리온의 속공 전개에 동점 위기를 맞았지만, 오리온 디드릭 로슨(23점)이 히스를 피해 패스를 하려다 실책을 범하며 자멸했다. 히스의 존재감이 빛난 순간이었다. 삼성은 74-73으로 근소하게 앞선 종료 38.7초 전 김동욱(10점)의 귀중한 끝밀 득점으로 힘겹게 오리온의 추격을 따돌렸다. 오리온은 3연패에 빠졌다.

창원에선 홈팀 LG가 서울 SK를 97-82로 완파하고 시즌 첫 2연승에 성공했다. LG 가드 이원대는 24점·5어시스트로 펼칠 날았다. **참살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프로농구 A매치 휴식기 외인 교체? KT 브라운 영입...DB는 교체 가닥



브라운

남자프로농구 각 구단이 시즌 중 전력에 변화를 주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외국인선수의 교체다. 팀이 침체에 빠져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거나, 해당 선수에게 기대했던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 교체에 나선다.

그러나 올 시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외인 교체가 쉽지 않다. 취업비자를 내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어온다. 영입 선수가 입국 후 2주간 격리를 거쳐야 하기에 몸을 만들 시간도 필요하다.

10개 팀이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정규리그 1라운드 막바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인 교체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바로 A매치 휴식기다. KBL은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1차 예선(바레인·개최 여부 미정)으로 인해 일정을 비워놓았다. 각 구단이 전력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다. 또 외인 교체를 고려하고 있는 팀들로서 조금이나마 시간을 벌 수 있다.

A구단 관계자는 “11월 초 영입을 확정하고 국내로 입국 시키면 2주 격리가 끝나는 시기와 휴식기가 맞물린다. 휴식기 동안 팀 훈련을 통해 컨디션을 끌어올리면 경기에 나설 수 있는 몸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KT는 발 빠르게 움직여 이미 브랜든 브라운(존 이그누브 대역) 영입을 확정했다. 브라운은 11월 첫째 주에 시애틀를 떠난다. 원주 DB 역시 외인 교체를 고려 중이다. DB 이상범 감독은 “지금 뛰고 있는 외국인선수들도 자가격리 후 컨디션이 나아지는 데 애를 먹었다. 2주 격리에 더해 선수의 컨디션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며 교체 의사를 밝혔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인삼공사 첫 승...GS칼텍스 3-1 제압



KGC인삼공사가 1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 원정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이겨 개막 3연패에서 벗어났다. 주요 발렌티나 디우프(13번)가 양 팀 통틀어 최다인 40점을 올리며 필멸 날았다. 득점 후 환호하는 디우프와 동료들. **장흥 |**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리시브 전담 ‘지민경 카드’ 통했다

이 감독, 리시브 문제에 지민경 선택 1세트부터 8번의 디그 완벽하게 살려 공격에선 외인 디우프 40득점 맹활약



KGC인삼공사가 개막 3연패를 끊고 시즌 첫 승을 따냈다.

1일 잠실체육관에서 벌어진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GS칼텍스와 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27-25 16-25 25-23 25-12)로 이겼다. V리그 2년차 외국인선수 디우프가 40득점, 48%의 높은 공격성공률로 팀 승리에 앞장섰다.

항상 공격이 한쪽으론 쏠리는 약점을 지닌 KGC인삼공사지만 이날만은 레프트에서 17득점, 센터에서 16득점으로 공격의 균형을 잘 맞췄다. 리시브를 담당할 레프트 한 자리가 문제였는데, KGC인삼공사 이영택 감독의 지민경 카드 선택이 적중했다.

지민경은 1세트 초반 4득점을 하는 등 자주 보였다. 7-6에서 서브에이스 허용을 계기로 주도권이 넘어갔지만 잘 버텼다. 지민경이 집요한 서브 폭탄에도 리시브 효율 44%로 팀의 빈 곳을 메워주자, KGC인삼공사가 따라붙었다. 25-25에서 지민경이 GS칼텍스 러츠의 백어택을 견제해 뒤 디우프가 반격을 성공시켰다. 이어 러츠의 공격이 아웃되면서 1세트가 끝

났다. 8번의 디그 찬스를 모두 살려낸 지민경 덕분에 역전이 가능했다. 1세트 8득점에 밤실 4개를 기록한 러츠가 2세트 들어 각성했다. 블로킹을 포함해 13득점으로 팀을 이끌었다. 엄청난 높이와 스피드로 71%의 공격성공률까지 찍었다. 양쪽 허벅지에 봉대를 칭칭 감은 강소휘가 무득점으로 부진해도 이소영이 5득점으로 균형을 잘 맞춰준 것도 GS칼텍스에는 큰 힘이 됐다. KGC인삼공사는 디우프가 8득점으로 제 역할을 했지만, 레프트 2명이 1공격득점에 그쳤다.

2세트 53%의 공격점유율을 기록했던 디우프가 3세트부터 다시 힘을 냈다. 50%의 공격점유율로 13득점을 했다. 23-23에서 오픈공격과 서브에이스로 세

트를 끝냈다. 지민경과 최은지도 합작 5득점으로 거들었다. 한송이와 디우프가 러츠의 공격을 7번이나 유효블로킹으로 원바운드시켜 공격효율을 18%로 낮춘 덕분에 주도권을 쥐었다.

GS칼텍스는 공격 삼각편대 중 강소휘가 평소보다 부진하자 러츠와 이소영만으로는 힘에 부쳤다. KGC인삼공사의 기세가 오른 가운데 세트 염혜선은 4세트에 다양한 본래로 하고 싶은 플레이를 모두 했다. 여기저기서 KGC인삼공사의 공격이 편하게 터지자, GS칼텍스는 속수무책이었다. 시즌 3패(1승)째를 당한 GS칼텍스에선 러츠가 30득점, 이소영이 17득점, 강소휘가 11득점을 기록했다. **장흥 |** 김중원 기자 marco@donga.com

너무 착한 다우디라서 팔스윙 타법 교정

(현대캐피탈)

스토리 발리볼

새 시즌을 앞두고 벌어진 대한항공-현대캐피탈의 연습경기 때였다. 로베르토 산탈리 감독의 요청으로 대한항공 훈련장을 찾은 김호철 전 국가대표 감독은 연습경기를 보던 중 “공 때리는 것이 달라졌다”며 현대캐피탈 다우디(25)의 변화를 대변에 알아챘다. 그는 “공을 끌고 내려오지 않고 팔을 편 채로 위에서 때린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높은 점프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던 다우디가 타법 교정을 통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부연설명도 곁들였다.

흔히들 배구선수의 팔 스윙은 야구선수의 송구동작만큼이나 교정이 어렵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온 것이기에 팔 스윙과 공을 때리는 방법(마팅)은 어지간해선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다. 짧은 시간

머물다가 떠날 외국인선수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호신뢰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은 다우디의 팔 동작을 수정하기로 했다. 배구 경력이 짧은 그를 더 좋은 선수로 키워 새 시즌뿐 아니라 계속 함께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엽그 레이드를 시도하고 나섰다. 다행히 다우디가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다.

10월 20일 우리카드와 시즌 첫 경기에서 다우디는 새 타법의 효능을 실감하며 원뿔소를 펼쳤다. 세트 김형진의 역할을 받는 족족 상대편 코트에 꽂았다. 엄청난 타점이었다. 김상우 KBSN스포츠 해설위원도 극찬했다. “그냥 높은 것이 아니라 상대의 블로킹까지 보고 있다. 백어택도 마치 전위에서처럼 코스와 블로킹을 보고 편하게 때린다”고 분석했다. 3세트 경기



현대캐피탈 다우디

에서 다우디는 30득점, 공격성공률 62%를 기록했다. 31일 한국전력과 폴세트 점전을 벌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고비마다 고공강타로 팀에 승점 2를 안겼다. 35득점, 공격성공률 63%였다.

다우디는 지난해 11월 요스바니의 대체 외국인선수로 입단해 시즌 후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 새 시즌을 맞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우간다로 돌아갈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예정됐던 결혼식도 취소됐다. 예비신부와 함께 지내지 못한지도 1년 가까이 된다. 낯설고 물신 타향에서 향수병에 걸릴 법도 했다.

현대캐피탈 김성우 사무국장은 “성깔 있는 다른 외국인선수라면 벌써 난리를 쳐도 몇 번을 쳤을 텐데, 다우디나 되니까 힘든 시간을 잘 참아줬다”며 거듭 고마워했다.

다우디는 “처음 한 달간은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현실이) 힘들었지만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니 어느 정도는 편해졌다”고 털어놓았다. 애완견과 산책하거나 온라인 한국어강의를 들으면서 외롭고 힘든 시간을 견뎠다. 구단을 그를 위해 서울, 제주도 등으로 여행도 보내주며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려고 했다.

고통의 시간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열심히 새 시즌을 준비해온 다우디는 이제 V리그 2년차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KB손해보험이 이번 시즌 외국인선수 트라이아웃에서 전체 1순위로 뽑은 케이타와 고공타점 대결이다. 두 선수 모두 아프리카 태생으로 타고난 점프를 자랑한다. 누가 더 높은 곳에서 때리는지를 놓고 7일 의정부에서 첫 맞대결을 펼친다. 그날 네트 위를 지배할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

김중원 기자 marco@donga.com

女배구 대표팀 라바리니 감독, 코로나19 양성

소속팀 노바라 경기 취소

한국여자배구대표팀 사령탑이자 이탈리아여자배구 이고르 고르곤졸라 노바라를 이끌고 있는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41)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라바리니 감독

나19) 양성반응이 나와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바라는 1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라바리니 감독과 엔리코

마르치오니 단장, 선수 2명 등 총 4명이 코로나19 1차 검사 결과 양성판정을 받았다. 추가 검사를 위해 격리됐다”고 전했다. 1일 예정됐던 벨타 데스파 트렌티노와 맞대결도 취소됐다.

라바리니 감독은 지난해 1월 여자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고, 2020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의 성과를 냈다. 올림픽이 내년으로 밀리며 계약은 자동연장됐다. 현재는 이탈리아

에 머물며 노바라 감독을 겸직 중이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새 유럽 내 신규 확진자는 약 150만 명에 달한다. 이탈리아프로축구 세리에A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AC 밀란) 등 세계적 스타들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